

남양주종합촬영소

매각 이후를 논하다

KOFIC

## 남양주종합촬영소 매각 이후를 논하다

「국내 촬영 스튜디오 현황 연구」를 위한 자문 대담

글 : 박아네스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6년 12월 13일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14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http://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6

# Contents

---

01

들어가는 글 / 1

---

02

BOX / 1

---

03

‘결’을 지켜라 / 5

---

04

안전을 담보하라 / 6

---

## 1. 들어가는 글

지난 10 월 17 일 남양주종합촬영소의 매각이 결정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남양주 종찰 매각이 최종 결정되기 전, 국내 영화 촬영 스튜디오 현황과 안전 매뉴얼 이행을 점검하고 종찰 매각 시 향후 대처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구가 본격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매각이 결정되면서 해당 연구는 '대처 방안'에 보다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재조정했다. 그리고 연구 일환으로 영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프로듀서 대담이 지난 11 월 9 일 진행됐다. <한국영화>는 남양주 종찰 매각 이후를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해당 대담을 요약, 재구성해 공유한다. 이날 대담 자리에는 6 명의 프로듀서와 이광진 영진위 남양주 종찰 소장 이외에도 표순철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주무관과 남양주 종찰 곽철선 과장과 김유형 차장이 함께했다.

### Box

**일시** 2016 년 11 월 9 일(수)

**장소** 서울 충무로 서울영상미디어센터 11 층 강의실 B

#### 대담자

**남정일** <거북이 달린다> <제보자> 프로듀서

**박태준** <설국열차> <표적> <뷰티 인사이드> 프로듀서

**신창환** <말아톤> <용의자>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프로듀서

**윤석찬** <푸른소금> 라인 프로듀서, <아가씨> 프로듀서

**최정화** <무사> <런닝맨> <밀정> 프로듀서

**최은화** <꽃피는 봄이 오면> <황진이> 프로듀서

**이광진** 영화진흥위원회 남양주종합촬영소 소장

**이광진** 남양주종합촬영소의 매매계약이 지난 10 월 17 일 체결됐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유찰된 끝에 이뤄진 매각이다. 매각액은 1100 억 원으로 1 년 후 잔금이 지급되면 상대에 인도할 계획에 있다. 2 개월 무상 사용 기간이 있으므로 늦어도 내년 12 월 17 일에는 양도가 완료된다. 반면 부산글로벌종합촬영스튜디오(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기장 도예촌 내)는 2020 년 6 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남양주 종찰 매각 이후 2~3 년간의 공백이 예상된다.

**최정화** 영화인으로서 남양주 종찰이 매각됐다니 아쉽고 안타깝다. 더욱이 십수 차례 유찰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팔아야만 했나 의문이다. 행정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방이전을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영화 촬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스튜디오까지 부산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이는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한다.

**박태준** 촬영 스튜디오 문제는 제작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남양주 종찰 매각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해왔다. 사실 부산 이전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부산이 '영화의 도시'로 통칭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영화산업 시장성만을 놓고 봤을 때 대전이나 광주, 전주보다 부산이 월등히 낫다고도 보기 어렵지 않다. 더욱이 남양주 매각과 동시에 부산에

스튜디오가 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그사이 공백은 매우 큰 손실이다. 제작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선 스튜디오를 부산으로 옮길 경우 상업영화 제작비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같은 경우 <설국열차> 이후엔 서울과 서울 근교를 벗어나 촬영한 적이 없는데,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 접근성이기 때문이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거리가 먼 경우 이동 등의 문제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숙박과 함께 기타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출연 배우도 싫어한다. 더욱이 부산에 보조출연자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나. 현재 국내 촬영 스튜디오 현황을 보면 숫자는 많아 보일지 몰라도 서너 군대를 제외하곤 제대로 된 세트장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창고 수준인 것도 있고. 게다가 개인이 하는 곳들이라 제작자 입장에서 그만큼 비용 출혈을 감내해야 한다. 그렇다면 설비가 좋지 않음에도 그런 곳에 가는 이유는 뭘까? 거리(접근성)와 그에 따른 부대비용 절약 때문이다. 촬영 스튜디오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심정적으로는 제작비의 30~40%, 실제적으로 10% 이상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 숫자는 예상치일 뿐이다. 그러나 그만큼 큰 부담이 영화인에게 돌아올 것이란 건 분명하다. 스튜디오 개수와 야외 촬영을 위한 오픈세트, 사극 촬영을 위한 운당 세트 같은 걸 갖춘 남양주 종합만한 곳이 현재로서는 국내에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최은화** 남양주 종합이 경기도 스튜디오 서너 개 이상의 역할을 한 게 사실이다. 그 공백을 부산이 오롯이 감당하게 되는 것인가?

**이광진**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산글로벌종합촬영스튜디오 완공이 2020년 6월로 예정돼 있고, 현재는 종합 매수자 측과 일정상의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2017년에 비워주게 되면 2020년까지 공백이 생기니 영진위가 이를 역매수해 임차,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또한 내년 7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축이 된 '대전 HD 드라마타운'이 문을 연다. 민간 시설, 혹은 이 같은 유관 기관을 활용하면 불편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신창환** 대전에 HD 드라마타운이 생기면 (거리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까진 제작비 안에서 운용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부산은 100% 예산 초과다. 한편, 대전에서 2편가량을 작업한 적이 있는데 미술팀과 CG 관련한 시설이 썩 좋지가 않았다. 물론 HD 드라마타운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이 부분에도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껏 작업을 해오면서 남양주를 포함해 안성과 이천 등등의 스튜디오를 가봤는데, 아무래도 영화 제작의 중심이 서울이다 보니 경기도 쪽을 선호하게 된다.

**윤석찬** HD 드라마타운은 1500평과 1000평의 메가 스튜디오가 메인이고, 600평짜리 스튜디오 2개와 병원과 법정, 교도소, 공항 등의 특수시설 스튜디오(1000평), 특수효과 스튜디오(500평)를 갖출 예정<sup>1</sup>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영화인 입장에서 이곳이 남양주 종합의 '완전한 대안'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스튜디오가 하나 더 생겨난 것이지 보완책은 아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 1500평 스튜디오를 써야 하는 영화가 일년에 몇 편이나 되겠는가.

**박태준** <설국열차>의 경우 체코 프라하의 바란도프 스튜디오 Barrandov Studio에서 찍었는데, 이때 큰 평수의 세트를 분할해서 사용했다. 대신 철거 비용을 우리가 냈는데, 그

<sup>1</sup>[HD드라마타운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HD드라마타운은 위의 스튜디오 시설 외에 종합 분장실, 대기실 등을 포함한 부속시설과 미술센터(세트 제작실, 의상 관리실, 소품 관리실 등), 후생시설(다목적 시사실, 식당, 의무실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11.30.

비용만 대략 2천만 원가량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앞서 부산으로 촬영 스튜디오를 옮겼을 경우 제작비 증액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 인센티브<sup>2</sup> 등을 지원해줄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다. 현재 현물을 중심으로 한 여러 형태의 지원제도가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이광진** 부산글로벌종합촬영스튜디오의 경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글로벌’을 표방하고 있다. 때문에 대형 스튜디오를 중심에 두고 있다. 현재 1700 평형과 500 평형의 실내 스튜디오를 계획 중인데, 1700 평의 경우 해외 작품 유치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필요에 따라 대형 세트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짓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듯하다.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현재 누리꿈스퀘어 스튜디오의 경우 세트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시 촬영은 힘든 것으로 안다. 세트를 분할하는 것과 함께 동시 사용 문제도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

**신창환** 누리꿈스퀘어 스튜디오는 드라마에 좀 더 특화돼 있는 세트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바닥이 굽히면 안 되는데, 드라마에 비해 스펙터클한 촬영이 많은 영화를 찍기엔 제약이 많은 곳이다. 한편 실내 스튜디오도 중요하지만 영화 촬영에 절실한 것이 바로 야외, 특히 사극 세트다. 그런 측면에서 운당 세트가 중요하다. 운당 세트가 사라질 경우 각 방송국 사극 세트장이나 저 멀리 외진 지역까지 찾아가 찍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이야말로 영화 발전을 막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극을 준비 중인 감독들은 운당에서의 촬영이 어려워진 점에 대해 보완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윤석찬** 사극 같은 경우 찍을 만한 곳이 몇 곳 없다. 게다가 영화팀이 먼저 예약하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어도 드라마 촬영이 들어오면 쫓겨나기 십상이다. 실제 공은 섭외가 어렵고, 한국민속촌은 너무 비싸 그나마 운당에서 많은 부분을 소화했던 게 사실이다. <관상>을 준비할 때 경복궁 촬영을 허락받기 위해 그 준비를 하는 데에만 3개월을 썼다. 촬영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고증도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주요 장소는 촬영하기가 정말 쉽다. 게다가 준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100% 촬영 허가가 난다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최정화** 사실 실제 문화재에 들어가 촬영하는 것 자체가 관련한 촬영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증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촬영 시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볼 순 없으니까. 그럼에도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마땅한 세트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사극 촬영에 있어선 방송사인 KBS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영화팀이 촬영을 하다가도 KBS 드라마가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지점은 없을까? 한편 <조선마술사> 같은 경우, 남양주 종찰에 세트를 정말 잘 지었는데 곧바로 철거해버렸다. 종찰 공간이 한정돼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조선마술사> 세트를 그대로 둘 경우 다른 팀이 들어올 공간이 줄어들다는 사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사전에 계획을 잘 짰더라면 기존 세트를 보존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간 배치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윤석찬** 해외의 경우 세트 하나를 짓고 다른 영화가 또 하나를 지어 연결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암살> 마지막 신 촬영을 위한 세트를 일산 한류월드 땅에 지었는데, 아주 잘 지은 세트였음에도 촬영 후 부술 수밖에 없었다. 한류월드 사업 주체인 경기도청과

<sup>2</sup> 부산영상위원회([www.bfc.or.kr](http://www.bfc.or.kr))는 현재 ‘영화(드라마) 제작진 숙소 및 해외영화(드라마) 스카우팅 지원사업’과 ‘프리프로덕션 스카우팅 지원사업’ ‘부산 로케이션 현장인력 지원’ 등의 부산 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류월드가 들어서 있는 고양시 사이에 협업이 잘 안 된 탓이다. 만약 이를 남겨뒀더라면 <아가씨>가 이를 받아 그 옆에 세트를 다시 지으면서 여러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경성 세트'가 이어져 조성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남양주 종철의 경우도 큰 그림의 계획을 미리 마련해뒀더라면, 세트 확장성이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명량>에서 거북선을 지어 촬영했다면 다른 촬영에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곧바로 부숴버리는 식이다. 이는 여러모로 손해다. 세트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이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재활용을 시스템화해줬으면 한다.

**신창환** 드라마는 사극 세트가 있는데, 영진위는 왜 영화를 위한 사극 세트를 짓지 않는지 의문이다.

**윤석찬** 조선시대 육조거리(조선시대 6 개 중앙관청이 있던 광화문 앞의 대로) 장면은 사극이라면 어떤 영화든 빼놓지 않고 나오는 장소다. 그런데 이걸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종철 위에 블루스크린을 치고 작업하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제작사가 세트를 지어 지자체에 이를 기증하는데, KBS 드라마 <태조 왕건> 같은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세트의 경우 대부분 가설건축물로 구분되고,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드는 탓에 지자체에 되레 부담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수익 사업을 관광과 요식업으로 잡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땅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 먹고 자는 것이 기본이 되어 수익 사업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 콘텐츠만으로 해보려니 안 되는 것이다. 과거 용인시가 고조선부터 근대 대한민국까지의 모습을 오픈세트로 구상했다 실패한 것도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였다. 영진위가 부산에 대규모 촬영소를 만든다면 앞서 얘기한 사극 세트와 같은, 좀 더 특화된 스튜디오에 힘을 더 실어주면 좋겠다. 즉, 서울 근교에 실내 스튜디오를 두고 보다 특화된 야외 오픈세트는 부산에 지었으면 한다.

**최은화** 우리의 경우 촬영 세트의 '관광 상품화'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반면 숙박과 요식업 등의 기본 인프라를 잘 갖추면 관광은 물론 촬영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태준**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엄청난 관광지인데, 실제 스튜디오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

**윤석찬** 먹을 것과 잠잘 곳이 받쳐줘야 사람이 유입된다. 촬영지에서 숙박과 식사가 안 된다는 건 종철에서 밥차 운영을 안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이를 위해서는 세트장을 위한 용지 변경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쉽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최정화** 멀리 갈 것 없이 중국만 하더라도 촬영 세트는 그야말로 관광지다. 정말 많은 사람이 온다. 다만 입장료를 내고 온 관광객이더라도 암묵적으로 촬영을 방해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고 있다.<sup>3</sup>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우리도 <아가씨> 세트 같은 것이 조성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으로 인프라가 조성될 텐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sup>3</sup> [HD드라마타운보고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촬영에 방해가 되거나 보안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현장 관람은 부적절하다'는 의견(37.0%)이 다수를 차지했다. 물론 '촬영이 없는 일부 시간에 세트를 공개'(23.5%)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작자 입장에서 보안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람시설 및 전시실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으로 '스튜디오 내 철저한 동선 분리를 통한 보안 강화'(65.5%)를 꼽았다.

## 2. '결'을 지켜라

**이광진** 2020년 부산글로벌종합촬영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하더라도 수도권 근교에 별도의 촬영 스튜디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향후 공적 입장에서 수도권 근교에 중소형 스튜디오라도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되는 부분이다. 혹은 이 같은 수요를 민간 스튜디오에서 해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최정화** 영진위 지방이전 계획에 스튜디오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수도권에 일부 세트를 운영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일이긴 한가? 개인적인 생각으론 영진위가 부산으로 내려간 건 내려간 것이고, 이와 별개로 스튜디오는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광진** 사실 지방이전은 관련 모든 기관의 '완전한 이전'을 전제한다. 하지만 정책은 차단돼 있는 게 아니다. 수도권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 등이 뒷받침돼 수도권 중심의 별도 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정부도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이후의 장기 플랜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다시 논의해볼 여지가 없지 않다.

**최정화** 앞서 민간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했는데, 우선 영화(를 위한) 스튜디오 사업에 민간이 들어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간 스튜디오의 경우 현재 드라마 세트가 많고, 창고 형태로 대강 지은 곳도 상당수다. 그럼에도 365일 돌아갈 만큼의 수요가 있다.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엔 이와 달리 시설비가 많이 들어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다. 게다가 수도권은 땅값도 비싸지 않다. 민간이 들어온다고 해도 계속해서 창고 형태로 운영할 것이다. 결국엔 관이 힘을 보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화인 입장에서선 하필 가장 먼 도시인 부산에 스튜디오가 생기는 셈이다. 게다가 2020년이면 먼 미래 같지만, 영화 1편만 찍어도 2020년은 금방 찾아온다. 수도권 운영을 염두에 둔 관의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남정일** 그동안 남양주 종찰은 설비와 비용 면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돼왔다. 그러니 리모델링이 안 되는 등 여타 불편이 있어도 영화인들이 계속해서 써왔던 것 아닌가. 민간 영역을 벗어난 공공 영역(영진위)이 중심이 된 스튜디오는 분명 필요하다. 또한 부산뿐 아니라 수도권 내 세트장 건립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민간 스튜디오에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현재 영화인들이 부산 촬영장을 찾는 건 서울과 달리 관공서와 도로 등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튜디오 촬영까지 부산에서 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서울 인근에 짓는 게 가장 타당한 방법이고, 어떤 규모가 적당할지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창환** 민간 업체, 개인 스튜디오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듯하다.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묻는다. 민간 스튜디오 대여는 영화보다 방송이 더 많고, 영화가 더 까다롭다. 영화인이 종찰을 더 선호하는 이유다. 만약 수도권 수요를 민간 업체에서 충당하길 바란다면 경기도 민간 사업자들이 영화를 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기도 민간 세트장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말이다.

**박태준** 남양주에 버금가는, 혹은 더 좋은 시설이 서울 또는 근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사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의 주 수입원은 드라마와 뮤직비디오고, 영화는 할수록 힘들다고 말한다. 이전에 모두 영화를 했던 이들임에도 말이다. 영화를 해온 사람들인 탓에 영화를 받긴 하지만 솔직히 하청업자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 한편 국내에서 촬영되는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설비가 너무 낙후한 상태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부산에 글로벌종합촬영스튜디오가 생기면 해외 프로젝트는 당연히 거기로 갈 것 같긴 하다. 그러나 국내 프로젝트를 부산에 데려가는 건 앞서도 강조했듯 큰 부담이다. 영화계 구조가 바뀌어서 예산 압박이 줄어들었다면 충분히 고려해보겠지만, 여기가 미국은 아니지 않나. 이 모든 걸 감수하고도 갈 수 있을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만 (부산글로벌종합촬영스튜디오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최은화** 부산글로벌종합촬영스튜디오가 1700 평형과 500 평형이라면 현재 남양주 종합을 대체할 시설은 (500 평형인) 1 개뿐인데, 수도권에 이를 대체할 세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최정화** 대형 스튜디오가 있으면 물론 좋다. 그런데 1700 평형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보면 해외 프로젝트 촬영 유치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싶다. 외화벌이에 급급해 국내 영화계엔 무관심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영진위라면 한국영화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광진** 지방이전을 준비하며 2012 년 진행한 연구에서 대형 스튜디오의 필요성<sup>4</sup>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윤석찬** 대전에 들어설 HD 드라마타운에 이미 대형 스튜디오가 있지 않나. 그런데도 또 지을 필요가 있을까?

**최정화** 1500 평형 이상의 메가 스튜디오를 써야 하는 영화는 당연히 큰 영화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예산 영화는 방송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 정도 규모의 스튜디오를 쓰는 영화는 최소 6 개월짜리 계약이다. 하지만 그런 영화는 현실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다. 즉, 메가 스튜디오는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물론 영진위가 대형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게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꼭 필요한가는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광진** 아직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의견을 다시 정리하면 수도권에 중소 규모 스튜디오가 꼭 필요하다는 것, 민간 스튜디오가 영화 촬영에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윤석찬** 충남영상위원회의 경우 민간 투자 유치를 받되 스튜디오의 관리 운영은 영상위가 직접 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체 공간이 없다는 게 문제라면, 각 지역 영상위원회와 협업해 오픈세트는 어느 영상위가 담당한다든지 하는 식의 단계별 협업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 3. 안전을 담보하라

**최은화** 해외 스튜디오에서의 촬영 경험은 어땠나? 국내와의 차이점, 혹은 배울 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다.

**박태준** <설국열차>를 기획하고 있을 당시엔 한국에서 촬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규모로 찍는다 하더라도 기차 4 동은 연결해야 했는데, 그러려면 최소 100 미터 이상의

<sup>4</sup> [HD드라마타운보고서]의 경우에도 영화 및 방송 등 영상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스튜디오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스튜디오 규모 및 높이’(83.5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화/드라마 제작 시 필요한 적정 스튜디오 규모는 1,000~1,500평이 25.4%, 700~1,000평이 23.9%로 최우선 선택을 받았다. 단, 이는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 제작 역시 염두에 둔 설문이라 영화에만 한정된 답변은 아니다.

길이 나오는 세트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만한 규모의 스튜디오가 없었다. 차선책으로 일산 킨텍스, 부산 벡스코 등의 대형 전시장도 알아봤지만 예약이 안 되거나 대여료만 30억 원 이상이 나왔다. 게다가 외국 배우와 투자자들과 미팅을 해보니 배우들이 한국에 오려고 하질 않더라. 한국에서의 프로덕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다. 외국 배우가 상당수 등장하는 만큼 해외 촬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 캐나다 등 북미 몇 개 스튜디오를 조사하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 쪽도 살펴봤지만, 당시 400억 원으로 잠정 계획했던 예산 안에서 촬영이 불가능했다. 자연스럽게 유럽에서도 동쪽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됐는데 이때 베를린, 헝가리, 체코의 스튜디오 세 곳을 답사했다. 제반 설비와 인센티브, 영화 스태프의 숙련도 등을 살폈고, 결과적으로 체코 바란도프로 결정했다. 공간의 적합성과 안전, 물가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개인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의 국내 촬영 유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 체코나 헝가리 등의 영화 스태프를 보면 할리우드와 20년 이상 함께한 이들이 많은데, 처음엔 할리우드 스태프의 조수 역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헤드급 수준의 노하우를 갖춘 이들이 많다. 할리우드와의 협업을 통해 두터운 경험을 쌓은 덕분이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바란도프 스튜디오의 경우 관광지는 아니다. 12개동가량의 실내 스튜디오에 야외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는데, 중세시대 유럽이 재현돼 있다. 남양주 종철의 운당이나 취화선 세트처럼 특정 시대의 공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인근에 세트를 덧붙여 짓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상당하다. 체코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헝가리의 경우엔 정부가 보증을 선다. 세트장 내 사고를 염두에 둔 보험의 경우엔 스튜디오는 물론 촬영을 진행 중인 영화 제작사도 가입이 필수여서 이중, 삼중으로 보완책을 만들어두고 있다. 스튜디오 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누구의 불찰이건 수습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걸 스튜디오 자체 노력만이 아니라 관련한 사회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스튜디오가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반면 우리의 경우 촬영하면서 손해보험만을 들 뿐,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조명 등 기기가 많고 액션이 다양한 영화 현장은 사고 확률이 높은 편이다. 때문에 안전과 이를 보장해줄 보험에 관련된 사항들은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최은화** 보험은 고사하고 안전과 관련한 운영 매뉴얼도 갖추지 않은 스튜디오가 대부분인 것이 우리 나라 스튜디오의 현실이다.

**윤석찬** <아가씨> 현장을 함께한 할리우드 스태프 중 한 명이 “시설은 할리우드와 비슷한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안전 문제”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실제 최신 시설을 갖춘 민간 스튜디오도 꽤 있지만, 설비 수준의 문제를 떠나 안전장치가 전무한 곳이 너무 많다. 또 사고 시의 매뉴얼, 구급 시설과 근처 병원 등과의 연계 문제도 제대로 구축된 곳이 많지 않다.

**박태준** 영화 현장에 의료 시스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그 비용은 제작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광진** 영진위에서 영화현장응급의료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 수요가 생각보다 많진 않다. 해당 지원을 받을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준수해야 하는 등 별도 규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욱 소극적인 듯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활용도가 높아져야 예산도 증액된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긴 시간 남양주 종철 매각과 이후의 영진위 스튜디오 사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마무리 발언을 해주면 감사하겠다.

**남정일** 정책적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영진위가 다양한 형태의 '운영의 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이용자를 중심에 놓고 현재의 계획을 다시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 인근에 규모 있는 실내 세트장을 건립해줬으면 한다. 당연히 안전을 고려해 제대로 설립해야 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요청 사항을 얘기하자면, 특수 오픈세트에 대한 욕심이다. 모쪼록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

**윤석찬** 우선 매각이 결정되고 스튜디오 사용이 어려워지는 때와 새로운 스튜디오가 문을 여는 사이에 별다른 대안 없이 긴 시간의 공백이 생긴 점이 아쉽다. 당장의 수요를 어떻게 메울지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최근 여러 기사를 보면 영진위와 영화인 간 소통에 문제가 상당한 듯하다. 스튜디오 문제만 하더라도 논의하기엔 때늦은 감을 지울 수 없다. 남양주 종찰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날이 오기 전까지, 스튜디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구조는 부산과 수도권 스튜디오의 '상생 구도'가 되길 염원한다. 한편, 스튜디오 건립과 관련한 것 외에 실질적인 대안책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예를 들어 법원 세트가 없어진다면 실제 법정에서 촬영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든, 기존의 법원 세트를 다른 곳으로 옮겨 운영을 하든 대비책을 강구해 움직여야 할 것이다.

**신창환** 현재 남양주 종찰에 6 개 세트가 있는데 부산으로 옮겨가 2 개만 짓는다면 이견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 또한 지역 영상위원회가 관리하는 세트와 장비 등을 '협업'의 형태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최은화** 매각 계획 그대로 간다면 남양주 종찰은 내년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또 다른 형태로 몇 년간 더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사용 기간이 확정되고 결정이 된다면 이를 영화인에게 빨리 알리는 게 그나마 혼선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과 경찰서, 고궁 등의 특수 공간은 세트 마련이 최선책이지만, 차선으로 관련한 실제 공간에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영진위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주면 고맙겠다.

**이광진** 대형 스튜디오에 대한 수요는 몇 해 사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엔 대형보다는 중소형, 그리고 특수 세트를 포함한 오픈세트 공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300~600 평형 규모의 스튜디오 건립에 관해 좀 더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